

OECD 개발전략 프렌즈그룹 회의 개최 결과

I. 회의개요

- OECD 개발전략 프렌즈그룹 회의가 11.7일 한국에서 개최되었으며, OECD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과 부산총회 계기 비회원국 의견방영 등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II. 주요내용

- OECD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과 부산총회 계기 비회원국 의견반영을 추진기로 하며, 11.24, 12.15 개발전략특별작업반 회의 개최와 부산총회 계기 아웃리치도 확정함.
- 4개 주요 분야 내용에 대해 전체적인 개발정책정합성(PCD)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며, 예산측면을 고려한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함.
 - 필요시 프렌즈그룹을 추가 개최하여 구체적 집행계획 이슈 등을 논의가능
- OECD 개발전략은 OECD가 가진 정책적 수단을 개도국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닌 개발 분야 지식공유를 통해 OECD의 비교우위 분야를 개도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OECD의 강점을 조직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됨.

III. 관찰 및 평가/건의

- OECD 개발전략은 전체 OECD가 보유한 정책분야 전문성과 비교우위를 조정, 보완, 조율하여 개도국 및 신흥국에 대한 OECD의 정책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“개발정책정합성(PCD)”, “지식공유(Knowledge Sharing)”를 중심으로 OECD 조직을 재구성하고 공동작업의 체계화(platform/framework 구축)를 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.
- ‘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’의 기조가 ‘개발결과(development results)’, ‘개발효과성 또는 효과적인 개발협력’인 점을 고려할 때, 금번 OECD 개발전략작업은 향후 부산총회 결과이행(Post-Busan) 프로세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인 바,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다각적인 기여가 필요함.